

## 별자리 해설

별자리란 동물, 물건, 신화 속의 인물들로 자주 표현되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것으로서 주목적은 하늘의 별들을 찾기 쉽게 이어놓은 것이다.

흔히들 성좌라고도 불리는 이것의 기원은 약 5,000년 전 바빌로니아 지역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강 지역의 양치기들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이들은 하늘의 별의 형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B·C 3,0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의 표석에는 양, 황소, 쌍둥이, 게, 사자, 처녀, 천칭, 전갈,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 등의 황도 12궁을 포함한 20여 개의 별자리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도 43개의 별자리를 B·C 3,000년경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이들의 천문학은 그리스에 전해져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 또는, 영웅 등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카시오페이아, 페르세우스, 안드로메다, 세페우스, 큰 공, 작은 공 별자리가 그 대표적 예이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 등의 동양의 고대 사람들도 별자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은 서양의 것과는 계통을 달리하며 중국의 경우 B·C 5세기경 적도를 12등분 하여 12차(次)라 지었고, 적도 부근에 28수를 만들어 별자리를 지었다. A·D 3세기경 283궁의 1,464개의 별을 실은 성도는 진탁이 완성을 하였으며 한국의 옛 별자리는 그 기원이 중국에 있다.

### 3) 가을

#### 1. 안드로메다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이것은 옛날의 에티오피아의 안드로메다라는 공주를 형상화한 자리이며 늦가을 하늘 밤 머리 위의 대 사각형의 모퉁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두 줄기의 V자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자리는 북동쪽으로 뻗어 있으며 2등급이 세 개나 되나 크기에 비하여 개수는 적다. 이것이 유명한 이유는 허리 부분의 안드로메다은하와 M31 때문이며 특히 M31은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와 가장 비슷하고 가까운 은하로도 유명하다. 또한, 발에 해당하는 부분에 2.0등급의 알마크(구두)라는 이름의 성이 있다. 북극성으로부터 은하수 쪽으로 양쪽 변두리에 연장선을 그으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카시오페이아의 모양이 W자로부터 남쪽을 보아도 발견할 수 있다.

#### 2. 카시오페이아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안드로메다의 어머니인 에티오피아의 왕비, 카시오페이아 왕비를 형상화한 이 자리는 늦가을 북쪽 하늘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다섯 개의 별들이 W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형상을 하고 있다. 거의 1년 내내 볼 수 있는 북쪽 하늘의 주극성이며 특히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북두칠성이 지평선 가까이 내려와 북극성을 찾기 힘들 때 유용한 도움이 된다. 카시오페이아 근처에는 성운, 성단, 이중성 등의 간단한 망원경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성이 많다. 북두칠성의 을 주극 변두리에서 약 5배의 길이를 연장한 곳에서 북극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의 길이의 반대쪽을 살펴보면 W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별자리 이야기

옛날 안드로메다 공주의 어머니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네레이드의 처녀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자랑을 하였다. 네레이드는 바다 속의 50인의 미녀가 살고 있는 궁전을 뜻하는데 이를 들은 처녀들은 포세이돈에게 일러바쳤다. 포세이돈은 노발대발하였으며 곧 에티오피아 해안에 티아마토라는 고래 같은 괴물을 보내어 보복을 하였다. 이에 어민들이 매일 고생을 하였고 지상에서도 가축들이 죽기도 하였다.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안드로메다 공주를 바쳐야 한다는 신약을 듣고 공주를 바치려 하였으나 메두사를 처치하고 돌아온 용사 페르세우스의 용감한 행동으로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할 수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티아마토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줌으로써 한 덩이의 돌로 만들어버렸고 이것이 신화가 된 별자리가 많다.

## 2. 카시오페이아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안드로메다의 어머니인 에티오피아의 왕비, 카시오페이아 왕비를 형상화한 이 자리는 늦가을 북쪽 하늘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다섯 개의 별들이 W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형상을 하고 있다. 거의 1년 내내 볼 수 있는 북쪽 하늘의 주극성이며 특히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북두칠성이 지평선 가까이 내려와 북극성을 찾기 힘들 때 유용한 도움이 된다. 카시오페이아 근처에는 성운, 성단, 이중성 등의 간단한 망원경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성이 많다. 북두칠성의 물 주걱 변두리에서 약 5배의 길이를 연장한 곳에서 북극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의 길이의 반대쪽을 살펴보면 W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별자리 이야기

먼 옛날 안드로메다 공주의 어머니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네레이드의 처녀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자랑을 하였다. 네레이드는 바다 속의 50인의 미녀가 살고 있는 궁전을 뜻하는데 이를 들은 처녀들은 포세이돈에게 일러바쳤다. 포세이돈은 노발대발하였으며 곧 에티오피아 해안에 티아마토라는 고래 같은 괴물을 보내어 보복을 하였다. 이에 어민들이 매일 고생을 하였고 지상에서도 가축들이 죽기도 하였다.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안드로메다 공주를 바쳐야 한다는 신탁을 듣고 공주를 바치려 하였으나 메두사를 처치하고 돌아온 용사 페르세우스의 용감한 행동으로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할 수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티아마토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줌으로써 한 덩이의 돌로 만들어버렸고 이것이 신화가 된 별자리가 많다.

### 3. 영소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희랍시대의 프톨레마이오스 때부터 정해진 오래된 별자리인 이것은 9월이 지나면 남쪽 하늘에 사각형을 거꾸로 한 형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별자리는 3등급의 별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찾는 데 그리 힘들진 않다. 특히 옛날부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의 겉보기 궤도인 황도의 10번째 별자리로서 기원전 6~7세기에는 이 영소자리의 동지점을 사용하였다. 지금은 동지점이 물고기자리에 있지만 이것에 대한 이유는 세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가을 초에 나타나는 영소자리는 백조자리의 데네브와 거문고자리의 베가, 독수리자리의 알타일을 서로 연결한 여름의 대 삼각형의 남쪽 연장선 부근에 있다.

#### 별자리 이야기

판이라 불리는 옥장의 신은 상반신은 영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로 이루어진 모습이였다. 머리가 약간 모자랐지만 노래와 춤을 잘해서 여러 신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일강변에서 벌어진 신들의 잔치에서 티폰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거대한 비바람을 타이푼(태풍)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이 된 티폰은 신도 당해낼 수 없어 모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도망쳤으나 판은 해염을 칠 수가 없어 물고기로 변신하려다가 그만 하반신만 물고기로 변한 채 강을 건넜다고 한다.

#### 4. 물고기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태양의 겉보기 궤도 황도의 12번째 별자리로 옛날부터 중요시 되어 온 이 자리는 가을의 사각형의 서동쪽과 남쪽에 L자의 형상으로 두 마리의 물고기가 리본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또한 눈에 잘 띄지 않는 별자리이지만 2,000년 전에 양자리에 있던 춘분점이 세차에 의해 지금은 물고기자리의 밑에 있다. 춘분점은 적경 0시의 자오선이 통과하므로 분초 자오선이라고도 부르며 이를 찾으려면 우선 가을의 사각형을 기준으로 찾는 것이 쉽다. 가을의 사각형이 페가수스의 별자리에 뿔뿔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것을 L자로 에워싸는 듯한 8개의 별자리를 찾으면 된다. 바로 고래자리의 북쪽이며 여기에 은하와 이중성도 발견할 수 있다.

##### 별자리 이야기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아들 에로스가 다정하게 유프라테스의 강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가슴둘레가 무려 150Km에 달하며 머리는 100개이면서도 각각이 불을 뿜어내는 괴물 '듀폰'이 나타나 그들을 괴롭히려 했다. 그를 당할 수 없어 유프라테스 강으로 뛰어들었는데 서로 헤어지지 않도록 리본을 꼭 맨 물고기로 변하였다고 한다. 물고기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에 태어난 사람들의 별자리이며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강하며 남을 도와주길 좋아하고 감상적이라고 전해진다.

## 5. 페가수스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페가수스란 희랍 신화에 등장하는 말로서 은빛 날개를 단 아름다운 말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10월 말 머리 위 사각형의 몸체를 발견할 수 있으며 가을이 아닌 다른 계절에는 삼각형을 이룬다. 다만, 이 사각형 중 배꼽에 해당하는 동쪽의 별은 안드로메다자리의  $\alpha$ 성이다. 이 두 별자리는 옛날엔 같은 자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떨어져 있으며 또한, 안드로메다자리의  $\alpha$ ,  $\beta$ ,  $\gamma$ 의 세 별을 합치면 큰 물 주걱이 된다. 이 페가수스자리를 찾으려면 10개의 물병 자리의 북쪽에 페가수스의 머리를 찾는 방법도 있고 북극성의 남쪽으로부터 안드로메다의  $\alpha$ 성을 찾아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 별자리 이야기

페가수스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칠 때 뿌려진 피가 스며든 암석에서 탄생했다고 하며 이는 날개를 단 천마(天馬)라고 전해진다. 페가수스는 제우스신의 벼락 화살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아테네 여신에 의해 헬리콘 산으로 끌려와 히포클레네라는 샘을 솟아나게 하고 나중에 콜린스톤의 왕 벨레로본에 의해 사로잡혔다. 벨레로본은 입에서 물을 뱉는 괴물 키마이 را를 퇴치하고 자랑을 하려 하늘로 날아오르다가 굴러 떨어지고 페가수스는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 6. 양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안드로메다의 남쪽 작은 삼각형의 별자리에 하늘을 나는 금색 빛의 털을 가진 양자리의 머릿부분을 찾을 수 있다. 이 또한 옛날부터 중요한 태양의 겉보기 궤도인 황도의 첫 번째 별자리이며 2,000년 전에는 이곳에 춘분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지금도 춘분점을 '백양궁의 원점'이라 부르며 양의 머리모양을 마크로 표현하고 있다. 양자리는 여러 별자리가 뒤엉켜있는 곳에 숨어있어 찾기가 힘든 별자리에 속한다. 쉽게 찾으려면 우선 안드로메다의 남서쪽에 자리 잡은 '가을의 사각형'을 찾는 방법이 있다. 이 사각형의 동쪽에는 세 개의 별들이 나란히 서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자리의 머릿부분이다.

### 별자리 이야기

보이오티아의 왕인 아타마스는 아내인 네페레와 플리크소스와 헤레타라는 남매를 낳았다. 하지만, 이혼하고 이노와 재혼하지만 이노가 두 아이를 낳자 곧 그녀는 전처의 자식을 귀찮게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해 보이오티아에 큰 흉작이 닥쳤고 신탁을 구원하기에 이르렀다. 신탁은 플리크소스를 제우스신에게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는 수없이 그 명을 따르려는 순간 전처 네페레가 보낸 황금색 털을 지닌 양이 덩벼들어 플리크소스와 헤레타를 업고 도망치지만 헤레타는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막는 해협에 빠져 죽고 다행히 플리크소스만은 살아남아 양을 제우스신께 바쳤다. 이 금색 모피로 만든 옷은 군신 아레스의 숲 속 가지에 걸쳐지고 헤레타가 빠져 죽은 해협은 훗날 헤레스폰토스라고 불렸다.

## 7. 물병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이것 또한 태양의 겉보기 황도의 11번째 별자리로서 페가수스의 남단에 있으며 면적에 비해 밝은 별들이 거의 없어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별자리에는 중앙의 4개의 별이 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아랍에서는 알달루(천수의 물독)라 불렀으며 물을 담은 두 개의 물독을 실은 말로 보았다. 동양에서도 이를 물과 연관을 지었던 것은 이 별자리가 태양에 오면 지중해 연안이 우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가을의 사각형을 우선 찾아야 한다. 그 후 페가수스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남쪽의 지평선 가까이 남쪽의 물고기자리를 찾고 그곳에서 위쪽을 보면 물병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별자리 이야기

올림포스의 술자리에서 헤라의 딸 헤베는 술시盅을 드는 일을 하다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신 술시盅을 들 사람이 필요했는데 가뉴메데스가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독수리로 변신한 제우스가 날아와 그를 데려가 버렸다. 그 후 가뉴메데스는 그때 가지고 있던 물병으로 신들의 술시盅을 들게 되었다. 그 물병 안에는 언제나 신들의 지혜의 원천이 될 마실 거리가 들어있었다고 전해진다. 1월 21일부터 2월 18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속한다. 이 별자리에 속한 사람들은 예리한 관찰력과 추리력이 있으며 설득력이 강하다고 전해진다.



## 8. 고래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하늘의 88개의 별자리 가운데서 네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고래자리는 12월 중순쯤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이 별자리는 그다지 밝은 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별자리는 황도에 속해 있진 않지만 아틀라스(B·C 315~B·C 240)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된 별자리이다. 12월 중순 남쪽 하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래자리는 물고기자리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을 따라 연장하면 미라라는 별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를 중심으로 9개의 별자리가 Y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